

프레임과 은유

윤상헌 (한동대, 언어학)

들어가며

2009년에 출간된 캐슬린 스토크의 동명 소설을 극화한 영화 <The Help>는 1960년대 초기 미국 미시시피 주 잭슨에서 그 당시 인종차별의 상황을 주인공 에이블린 클락을 비롯한 여러 흑인 가정부의 시각으로 술회하고 고발하는 작품이다. 작가 지망생 유티니아 “스키퍼” 펠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신문에 칼럼을 쓰는 일을 맡게 되어 잭슨에 머문다. 그는 결혼한 친구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흑인 가정부들을 대하는 태도에 불편함을 느낀다. 자신 역시 흑인 가정부에 의해 양육을 받았던 스키퍼는 흑인 가정부들의 손에서 자란 백인 아이들이 어른이 된 후 자신들의 부모들과 똑같이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에이블린과 그의 친구 미니를 비롯하여 여러 흑인 가정부의 도움으로 그들의 체험을 책으로 출간하게 된다. 인터뷰를 한 흑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책은 집필에 참여했던 세 사람의 주인공(스키퍼, 에이블린, 미니)들과 그들이 속한 흑인 공동체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잭슨을 비롯한 남부와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의 일상적 폭력성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장한 역할을 한다.

이 영화는 자신들의 아이들은 집에 두고 백인들의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그들을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는 흑인 가정부들이 정작 같은 화장실도 쓰지 못하는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여러 각도로 관찰할 수 있다. 대부분 이 차별의 프레임은 ‘인종차별’이라는 하부 프레임으로 표출된다. 즉 흑인은 백인을 무서워하고, 백인은 흑인을 무시한다. 그 프레임 속에서 에이블린은 교통사고를 당한 외아들이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 소파에서 죽는 것을 경험한다. 하지만 작가는 동일한 백인인 ‘셀리아 풋’을 향한 차별을 동시에 부각시키면서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이 단순히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인종적 편견이 아니라 사실상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존재론적 만행임을 드러낸다.

이 영화를 서두에서 살핀 이유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60년대 미국 남부

미시시피 주 잭슨에 이른바 기독교 예배가 존재했고 성서적 내러티브와 어휘가 통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기독교세계관”적 아비투스¹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세계관의 방향성과 충분히 어긋나는 ‘차별’의 프레임이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비대칭적이며 비성서적인 차별의 프레임 속에서 차별의 대상인 흑인들의 삶과 언어가 오히려 기독교세계관에 더 부합한다는 사실이다.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정부 일을 시작한 주인공 에이블린은 50살이 되기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외아들을 죽게 한 백인들의 아이에게 “You are kind, smart and important”(너는 착하고 똑똑하고 소중한 존재란다)의 가치를 가슴으로 가르치고 콘스탄틴은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힘들어 하는 십대 백인 소녀 스키터에게 “오늘 나를 험담하는 바보 같은 말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가슴의 조언을 준다. 그 눈빛은 정녕 딸을 향한 어미의 시선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관에 부합하고 조율된 프레임의 가능성을 본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에이블린이 힐리 홀브룩에게 던진 말은 “You are a godless woman”(너는 나쁜 여자야)이다. 힐리의 사악함은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에이블린이 해고된 후 집을 나서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는 대사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들린다.

세계관과 프레임과 은유의 관계

세계관은 사건이나 상황, 세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기본의 틀로서 사고와 행위의 지침과 전제가 된다.¹⁾ 세계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방식이라면 프레임(Frame)은 그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조지 레이코프에 따르면,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과 결과를 결정한다.²⁾ 세계관이 원론적이며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프레임은 보다 각론적이며 구체적인 의제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미분적으로 구조화된 개념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레이코프는 철학자 마크 존슨과 함께 쓴 <삶으로서의 은유> (Metaphors We Live By)에서 우리가 지각하고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1) 알버트 월터스 (1992).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역. 서울: IVP

2) Lakoff, G.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유 나영 역(2006)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서울: 삼인. p.17.

구조화하는 이 개념체계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라고 말한다. 은유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의 개념들을 유사성의 관점에서 비유하는 인지적 표현 방법이다.³⁾ 이 은유적인 본질은 구체적인 일상 언어로 작동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라는 언어적 표현은 목표개념을 시간으로 하고 출발개념을 돈으로 하는 은유적 개념구조를 갖는다. 즉, 시간에 대한 개념을 돈이라는 물화적 경험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여 “시간은 돈이다”라는 프레임을 형성한다. 사람들은 이 프레임에 의거하여 시간과 관련된 행동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시간은 돈처럼 아껴 써야 하고, 계획 없이 쓰다보면 부족할 수 있고, 낭비할 수 있고, 저축할 수 있는 실재물로 간주된다.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세계관이 주어진 시대의 일정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단절되거나 고통되고 변질되어 구조화된 (인종)차별 프레임으로 나타나고 그 개념체계 안에서 억압과 착취가 합리화되는 양상은 문제의 핵심이 원론적 세계관과 각론적 프레임 양자의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연결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사례들

“ㄱ” 집사는 어느 누가 보아도 충성스럽고 성실하다. 오랫동안 주일학교 부장 집사로 봉사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반듯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늘 웃는 낯을 하며 부정적인 언사를 거의 입에 담지 않는다. 교우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할 때 ‘목자’의 애타는 심정을 표현하며 실천하려고 애쓴다.

문제 상황: 긍정과 은유의 화신인 듯 한 그가 무례하고 ‘도전적’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만날 때이다. 거의 ‘묻지 마’ 수준으로 정부를 옹호하고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반박을 한다. 주로 사용하는 논조는 ‘형제의 눈에서 티를 찾지 말고 내 눈에서 들보를 뽑아라’ (개신교 식의 ‘내 탓이요’)고 하거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서 나온다’는 식이다. 그가 문제시 하는 것은 쟁점의 본질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표현이나 태도 자체다. 그의 돌변하는 모습도 당혹스럽지만 더 큰 어려움은 대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3) 오예옥. (2011). *언어사용에서의 은유와 환유*. 서울: 역락. p. 17.

4) 앞의 책, p. 19.

“ㄴ” 교수는 오랫동안 기독교 대학에서 재직해 왔다.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말은 그가 강의실 안팎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세상의 어느 한 치의 땅이라도 우리 주님의 것이 아닌 땅은 없다”고 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고백도 그가 즐겨 입에 담는 경구 중의 하나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전공 강의보다 기독교 세계관 관련 강의나 특강을 할 때 더 열정적이 된다고 말한다.

문제 상황: 그의 이야기는 십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의 세계관 강의 노트의 내용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테제가 무색하리만큼 전공 영역에서 통합적 연구결과가 없으며 이따금 그가 여는 전공 강의는 수강생이 적어 폐강되기도 한다. 어쩌면 그의 이야기는 기독교 세계관 담론이 여전히 율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지도 모른다. 그가 학교 안팎의 사회정치적 쟁점에 관해서 입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다.

“ㄷ” 목사는 따르는 평신도들이 주위에 많은 편이다. 그를 존경한다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도 꽤 된다. 분명하고 단순한 그의 설교와 세습이나 횡령, 불륜 등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목회자들과 차별이 되는 그의 반듯한 삶은 한국교회의 평균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 상황: 그의 도덕적 설교의 내용과 방향은 늘 일정하다. 힘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권고하지만 힘이 있는 가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질책하는 법이 없다. 사건이나 사고를 해석하는 틀은 언제나 개인 윤리적 성찰에 머물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⁵⁾ 그가 세상을 해석하는 틀은 상부지향성을 지닌 중산층의 관점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

평가 및 제시

5) 자살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모든 문제를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로 보고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태도를 낭만적이며 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은 예언자적 설교가 개인과 사회, 실존과 구조, 인간과 생태 문제 등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포괄하는 역사와 거기서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생명의 신비에 마음을 열어둔다는 뜻과 어긋나는 성급한 예단이다 (정용섭, 2006. *속빈 설교 꼭 찬 설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p. 100-101).

상기에 전술한 문제 상황은 믿는 바를 말하는 것과 그것을 따르는 것의 단순한 일반적 불일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거친 분석일 것이다. 레이코프는 진리를 진리로서 지각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에 적절하게 넣어야 하며 그 적절한 프레임은 맥락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다양성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경쟁을 통해 성공을 쟁취하는 도덕성 권위의 법칙, 개인적 책임의 원칙, 자유시장의 원칙, 자수성가의 원칙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며 보수적 도덕성의 핵심을 권위와 통제로 본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감정이입과 책임에 근거하여 공익의 원칙, 자유 확대의 원칙, 인간 존엄성의 원칙, 다양성의 원칙을 우선시한다.

레이코프는 미국인들은 국가를 가정이라는 은유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은유적 개념체계는 가정에 대한 두 가지 매우 상이한 프레임으로 구현된다고 보았다. 그것은 ‘엄격한 아버지’의 가정과 ‘자애로운 부모’의 가정이다. 전자는 보수주의자들의 모형이며 후자는 진보주의자들의 모형이 된다.

레이코프는 이라크와 관련하여 ‘전쟁’ 프레임과 ‘점령’ 프레임의 극명한 차이를 설명한다. 각각의 프레임은 상황과 사건을 정의할 뿐 아니라 그 결과와 해결책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즉, ‘전쟁’ 프레임에서는 ‘철수’하는 것이나 도망치는 것과 같이 비겁하고 부도덕한 행동이 된다. 하지만 ‘점령’ 프레임에서는 언제 떠날지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 ‘전쟁’ 프레임과 ‘점령’ 프레임을 결정하게 되느냐이다. 물론 레이코프는 적용차원에서 프레임을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묻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우리는 ‘엄격한 아버지’의 프레임과 ‘자애로운 부모’의 프레임이 결과하는 행동 방식과 정책과 제도를 짐작할 수 있다. 프레임을 재구성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피터 버거가 말한 ‘타당성 구조’를 형성하는 것 -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략과 적용 차원에서 레이코프는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다르게 생각하려면 다르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대두된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프레임의 재구성의 문제는 되찾아야 할 언어의 문제이다. 레이코프가 비판한 프랭크 룬츠의 우익 언어 책략은 부정적인 예지만 그 실마리를 보여준다. 심각한 공해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나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윤리적 에너지원으로 간주되는 핵발전소의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오웰적인 책략으로서 환경주의자들의 ‘건강한(healthy)’, ‘깨끗한(clean)’, ‘안전한(safe)’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원래는 영화에서 줄거리나 결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복선이나 중요한 실마리처럼 보여 관객의 주목을 끌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는 일종의 맥거핀 효과 (MacGuffin Effect)의 새로운 유형으로 희망과 해결의 실마리를 던지는 듯 한 인상을 주는, 그러나 실제의 맥락과는 어긋나 있는 전략적 방법에 속한다.⁶⁾

‘규제(規法規 制마를 제)’라는 낱말을 생각해보자. 본래 규제는 규칙의 다른 말로 ‘어떤 일을 할 때, 여럿이 다 같이 따라 지키기로 약정한 질서나 표준, 규범을 말한다. 의미장(semantic fields)을 공유하는 규범 역시 판단, 평가, 행위 등의 기준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규제’가 규칙이나 규범과 어휘 의미상 기준과 제도라는 뜻을 공유하고 있지만 더불어 제한(restriction)과 통제(control), 단속과 조절(regulation)이라는 보다 분화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부정적인 함의(connotation)가 담겨 있다. ‘규제’의 부정성은 곧바로 규제는 ‘암덩어리’ 같은 은유적 언어를 통해 경제를 옥죄는 ‘죄악’으로 규정되고 전쟁의 은유와 더불어 마땅히 퇴치되고 철폐되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에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실제로 ‘규제완화’는 화두가 되고 있다.

문제는 ‘규제(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 즉 규제의 대상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정밀하고 다각적으로 살피는 합리적인 성찰과 평가를 생략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규제 자체를 부정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회적 공동 이익이라는 맥락과 절연된 형태로서 사회공동체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⁷⁾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은 말하는 대로 행하기(Walk our talk)와 더불어 행하는 대로 말하기(Talk our walk)의 의미를 가리키며 말이 지니는 위력과 무게

6) 정치학자 김준형은 구체적인 로드맵과 명료한 정책과 전략을 발견할 수 없는 정치외교담론을 가리켜 맥거핀 효과라는 용어로 설명한 바 있다. (경향신문 칼럼 2014.4.20.일자)

7) ‘규제는 ‘죄악’이라는 정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03.23. 논평

못지않게 말의 오용과 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정사와 권세’와 관련된 언어의 회복을 언급하면서 ‘정사와 권세’의 개념적 프레임이 교회 안에서 유실되었다고 말한다.⁸⁾ 그에 따르면, ‘권세’와 관련된 언어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 루터와 칼빈이 묵시적 분파들의 종말론을 경계하여 사용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권세’의 개념이 묵시적 상상으로 축소되고 영화(spiritualization)되어 천사적 존재들과 동일시되거나 그에 대한 반동으로 비신화화되어 인간적/사회적 구조와 동일시되었다. 마르바 던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독교 윤리의 모색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우주적 권세들’이 인간은 아니지만 국가, 경제, 미디어, 이념 등의 도구를 통해서 인간의 사건과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서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서도 작용하여 오늘날의 국가와 교회들도 선한 목적이 아니라 악한 목적에 복무하는 정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⁹⁾ 월터 핑크는 지배체제 속의 악령들에 대한 분별과 저항을 도모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권세들’의 의미를 영적인 차원에만 국한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는 권세와 관련된 교회의 사명을 “[권세들의] 이상적인 가면을 벗기고, 그들의 비인간화하는 가치들을 규명하고, 그들이 입은 고상함의 옷을 벗기고, 그들의 희생자들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⁰⁾ 이들 영적인 권세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구조와 기관들 혹은 체제들의 내면성이라고 보고 소수의 도덕적 관심만으로는 억압적인 체제를 변경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¹¹⁾

김준형은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논란이 되는 질문을 다루며 국가가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존재하여 개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측면이 있지만, 역사는 국가를 절대시해서 생기는 폐해가 적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¹²⁾ 국가 체제가 그 자체로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라 타락할 경우 얼마든지 악마적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공공선으로서 국가와 국가를 가장한 소수

8) 마르바 던의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 p.23.

9) 그의 지적은 권세의 인격적 존재성과 인간적/사회적 구조성 모두를 포착하므로 권세에 관한 환원주의적 오류를 피한다. 윌리엄 스트링펠로우의 그의 책 <낮선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이방인들을 위한 윤리>에서 정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종류, 수, 이름이 매우 많고 다양함
2. 타락한 피조물로 무질서와 혼란과 경쟁 속에서 번성함.
3. 전도된 통치로 반생명적이며 비인간적 경향성을 가짐.
4. 선량하지 않고 공격적임.
5. 모든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
6. 지도자들로 하여금 노예된 상태에서 미혹시켜 꼭두각시로 부림.
7. 자신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우므로 늘 서로 경쟁함.
8.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 냄.

10) 마르바 던 (2001).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 노종문 역 (2008). 서울: 복 있는 사람, p. 29 재인용.

11) 월터 핑크 (1992).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한성수 역 (2004).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p.162-163.

12) 김준형, 윤상현 (2013). *언어의 배반*. 서울: 뜨인돌, p.39

불량배들의 조폭 시스템을 구분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비판적 지지와 협력의 자세를 갖고 후자의 경우는 불복종과 저항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¹³⁾ 니물러 목사와 본 회퍼 목사의 나치 정권에 대한 저항,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민주화 운동 등은 국가라는 옷으로 위장한 소수의 권력자나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가의 정당성을 이용하는 불의한 정치세력에 대한 의로운 저항임에 틀림없다. 교회 역시 정통과 진리의 이름으로 제국의 공권력을 빌려 폭력과 고문, 살해를 자행한 일이 십자군 운동의 과오 외에도 중세 가톨릭과 개신교회 안에서 분명히 있었다.¹⁴⁾

교회 속의 세상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강론에서 김근주는 베데스다 체제를 ‘선착순’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외견상 공평한 원칙으로 지배되는 곳이지만, 정작 장애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침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차별과 불평등의 체제라고 진단한다.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 체제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다. 즉,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인 셈이다. 설교자는 이러한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묻는다. “만일 이 베데스다 사회에 독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교회가 과연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방도나 정보를 주는 곳이어야 하는가? 본문의 예수는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넣어 주지 않으셨다. 경쟁사회 체제 속에서 그저 마음의 안식만을 주지도 않으셨다.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병자는 연못의 기적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질문은 그의 회복과 고치심에 대한 기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어지는 주의 말씀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다. 본문에서 주님은 베데스다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연못의 기적을 향한 경쟁사회의 적응력”, 체제 내의 구원이 아닌 것이다.¹⁵⁾

사적 욕망의 프레임과 은유의 체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13) 앞의 책, p.46

14) 루터는 제후들에게 농민들의 살상을 부추겼고, 쾰른의 재침례교도들을 처형하거나 추방했으며, 칼뱅은 세르베투스 등 이단자들을 처형하고 고문하는 일에 앞장섰다. (신광은 (2014). *천하무적 아르헨주*. 서울: 포이에마, p.329)

15)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5장 2-9절 (포럼 비블리쿰) <http://biblica.net/forum/%EB%B2%A0%EB%8D%B0%EC%8A%A4%EB%8B%A4%20%EC%97%B0%EB%AA%BB.pdf>

‘설교’가 난무하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김근주 교수의 강론은 성서적 프레임의 재구성의 중요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한국교회의 반사회적이며 몰역사적 언사와 부조리한 관행이 혁파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서적 세계관과 단락된 사적 욕망의 프레임과 은유 체제에 갇힌 반생명적 언어에 있다. 그러한 언어가 신앙과 행위, 신학과 윤리의 유기적 통일성을 포착하는 것은 애시당초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그 언어의 혼란 속에서 교인들은 끊임없이 현실 권력과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며 현실 권력자와 하나님을 유사 동일체로 인식하며 체제 내의 안녕과 번영을 하늘의 복으로 간주한다.

황제의 칙령에 의해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 지상 교회가 지배와 정복의 프레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작금의 한국교회는 사회윤리학자 손규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군사문화 프레임에 복속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군사문화 프레임은 국내적으로는 독재와 반민주, 사회적 계층화와 경제적 경쟁을 가속시키고 국제적으로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토대를 구축한다. 삶을 전쟁과 갈등의 프레임으로 담아내는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치유와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없는 일이다.¹⁶⁾

마치며

기독교세계관의 “언어”를 말하면서 얼마든지 욕망의 정치경제적 프레임에 예속될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의 담론은 “기독교인”들의 언필칭 세계관의 담론과는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기독 공동체가 “성경의 정밀한 독해를 통한 비판적 분별력을 구사하지 못하고...대중적인 담론의 범주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때]”¹⁷⁾ 얼마든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난독과 오독의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엄격한 아버지’의 프레임과 진보주의자들의 ‘자애로운 부모’의 프레임이 여러 구체적인 행동 방식과 정책과 제도를 결과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두 가지 프레임 모두 국가를 가정으로 보는 은유적 구조에 터하고 있다.¹⁸⁾ 이 프레임에 내장되어 있는 은유적 구조를

16) 윤상현, 2013. “지배와 정복의 언어를 내려놓자”, 크리스챤너티 투데이 한국어판. 2013. 9월호. p.74

17) 리처드 헤이스 (1996). *신약의 윤리적 비전*. 유승원 역(2002), 서울: IVP. p.25.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상관하지 않는 세계관은 욕망의 프레임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는 설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이름으로 혼란과 무질서를 가중시킬 것이다.

-
- 18) 1. 국가는 집이고 국민은 형제자매이며 정부나 정부의 수장은 부모이다.
 2. 국민에 대한 정부의 의무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와 같다.
 3. 부모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해주듯이 정부는 법을 제정한다.
 4. 부모가 우리에게 언제나 충분한 돈과 먹을 것을 제공하듯이 경제를 이끌어 간다.
 5. 부모가 우리를 훈육하듯 정부는 공교육을 제공한다.
 6. 이 은유는 낙태에서 총기규제에, 환경 규제에서 소송제한에, 동성 결혼에서 부동산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사안과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